

“회원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경영학회”

존경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후보로 공천받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이영면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역대 한국경영학회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면서, 학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기업이 찾아오는 경영학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경영에 대한 연구와 기업의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술연구는 글로벌수준에 이르렀으나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에 속시원히, 그리고 충분히 답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경영학 연구를 통해 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적 경영(K-Management)에 대한 이론정립과 사례개발을 장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의 현안에 대해 이슈 리포트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학회와 기업간에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2 지역별로 특화된 학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지회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학회와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참여 학회간에 통합되고 융합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통합학술대회에서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회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세션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회간 통합프로그램과 세션에 대한 지원을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II. 경영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경영학회를 만들겠습니다.

2.1 경영학분야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경영학분야의 정원감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의 경영교육대학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영교육인증원, 경영대학장협의회, 경영대학원장협의회, 경영전문대학원장협의회 등과

간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부, 산업부 등 정부와 협의해 경영학 분야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2.2 신규회원 확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경영학회 가입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각 대학교 대학원간에 학점 교류 제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통합학술대회 등에서 Pre-Job 인터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3 글로벌화는 K-Management로 특화하겠습니다.

전임 회장단의 글로벌화 사업을 이어받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지역 등에 K-Management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K-Management를 해외로 확산시키겠습니다.

III. 다양한 회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3.1 미디어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회 홈페이지를 모바일화하고, 미디어 자료실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3.2 시니어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한림원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학회차원에서 한림원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3 늘어나는 여성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회 집행부 구성과 활동에서 여성 임원과 회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3.4 학술대회에서 운영가능한 일가정양립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캠프와 놀이방같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3.5 참여 학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차기회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지 평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운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 사무국 운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영학회 차차기회장 후보 이영면 올림